

무대분장이 공연자의 심리상태 및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

류 세 자* · 박 민 여**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The in Fluence of Stage Make-Up to Psychological Condition of Performers and Performance

Seja Ryu* · Meegnee Park**

Doctoral Course,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2005. 3. 30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unction of make-up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erms of its influence to psychology of performers and outcome of their performance. From June to November 2004 performers in 4 types of fields, i.e., opera, musical, drama and dancing being performed in Seoul and Cheongju were chosen as subjects and totally 450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and distributed and among them 416 were used as data for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path analysis,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by means of SPS 12.0 and AMOS 4.0 statistical programs and as ex post facto checking Duncan's multiful range test was conducted.

Make-up is an important element in acting and it has great influence on level of psychological satisfaction of an individual. It was disclosed that psychological factor of concentration and lethargy have direct bearing on acting performance. In order to maximize actor or actresses performance skill perfect make-up is essential and role of make-up specialist can become a critical factor for inducing success in performance. Role and duty of make-up artists in terms of scope of their responsibility should be extended so that they may give their full support to the performers to be most successful in their performance.

Key words: performance(수행), psychological condition(심리상태), performers(공연자)

I. 서론

공연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예술행위와는 달리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와 기술자가 모여 토론하고 타협하여 각기 다른 요소와 행위를 종합함으로

써 조화롭고 통일된 예술 작품을 창출하는 종합적이고 집합적인 예술행위이며 분장은 공연자가 무대 공연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등장인물로 변신을 시켜주기 위한 역할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작품의 인물을 창조하는 외형적(관객에게 말기는 시각적인

것) 여건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분장은 관객을 위해 행하여지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용수 자신을 위한 심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¹⁾

Jim Taylor(년도)는 공연 시 무용수에게 미치는 통제 가능한 것(controllable)과 통제 불가능한 것(uncontrollable)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통제 가능한 것은 무용수의 행동, 신체적 조건, 동기, 노력, 태도, 생각, 감정, 의상, 준비, 공연 등이라 하였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다른 사람의 태도, 생각, 감정, 동기, 행동, 다른 무용수의 연기, 안무가, 음악, 조명, 공연 공간, 무대 장치, 분장, 마지막 순간의 변화 등이라 했다.

즉, 분장은 공연자 자신이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서로의 의견을 통해 절충이 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연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공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장은 신체적 변화를 주는 외적 영향과 동시에 공연 시 배우나 무용수의 심리적 변화의 내적영향의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요인은 공연 시 무용수나 배우의 심리 상태에서 그들의 기술과 체력을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부정적 심리요인은 배우나 무용수에게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장이 미치는 긍정적 심리요인은 공연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용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접근보다 어떤 심리학적 상태로 공연을 하게 되는지, 최적의 공연을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무용수가 최고의 수준으로 공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 자신감, 긴장, 그리고 집중력 등과 같은 심리적 영역의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했다.²⁾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서도 선수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 심리상태는 무엇이며, 심리 상태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경기 수행을 위한 '최상의

심리 상태'라 함은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이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서 자신감, 집중, 긴장, 불안, 동기, 흥분 등의 요인이 적절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³⁾ 이와 같이 스포츠 경기상황과 무용 공연상황에서 심리적이요인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경기력과 공연 수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새롭고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공연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선행연구로 조은숙(1993)⁴⁾의 무용수의 심리적 불안 요인에 관한 분석은 무용심리학을 바탕으로 무용수의 최상의 연기를 위해 무용수, 안무가, 지도자가 심리적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본연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연구 문제로는 무용수의 학력 차, 무용경력, 입시생과 비(非)입시생에 따른 불안 수준을 알아보았다. 검사 도구로는 1990년 한국 체육과학 연구원에서 개발한 '스포츠 경쟁불안 검사지'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전체적으로 무용 경력이 많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무용 경험이 많을수록 무용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입시생과 비입시생의 불안요인은 입시생의 경우 연습불안, 주위의 기대에 대한 불안감, 자신감 결여, 낯선 장소 및 의상, 신체적 불안 순으로 불안요인이 나타났으며, 비입시생에 비해 5개의 불안요인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강경수(1996)⁵⁾는 무용수의 심리불안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불안은 수많은 심리적인 증상을 나타내며 공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불안은 공연활동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는 무용수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불안에 관한 연구는 효과적인 무용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무용수의 심리불안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집중도를 조절한다면 최고의 공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남자 무용수에 비해 여자 무용수가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컸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적 불안 심리는 낮았으며, 단지 실패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력이 높을수록 책임감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며, 경력이 낮을수록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2000)⁶⁾의 직업 발레 무용수들의 심리적 방해 요인에 따른 공연수행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무용수들의 심리적 방해 요인을 크게 8가지로 구성하여 서울국립발레단, 서울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씨어터에 소속된 직업 발레 무용수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용 공연에 있어서 분장시간으로 인해 6명의 무용수들이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장 불만족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는 3명의 무용수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장의 심리적 요인이 무용수의 공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분장 시간에 대한 무용수들의 심리 상태는 불안감, 짜증, 긴장, 불안, 초조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였고, 분장 불만족으로 인한 심리 상태는 불편, 실수, 위축 등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분장 시간에 대한 부정적 심리상태의 대처 방안으로는 순서를 정해서 미리 준비한다, 몸을 푸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한다, 빨리하자고 생각하며 서둘러서 한다, 분장을 간단하게 라인이나 선만 그린다, 옷을 미리입고 분장 순서를 기다린다. 라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분장 불만족으로 인한 대처방안으로는 담배를 피운다, 분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분장을 다른 색으로 바꾼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상 무대공연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선행논문을 살펴 본 결과 조은숙(1993)과 강경수(1996)의 연구는 무용수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전인 불안수준을 측정하였다. 배경변인으로 조은숙(1993)은 학력차, 무용 경력, 입시생과 비(非)입시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강경수(1996)는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배경변인을 구성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김정수(2000)의 논문은 분장을 무용수의 공연수행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한 국내 유일의 논문으로서 본 연구과제에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분장에 대한 설문 구성과 문항, 측정 대상자가 제한

적이었고 판단된다.

무대 분장이 공연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장을 의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소홀히 취급되며 또한 공연자들의 분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를 무용수만이 아닌 연극, 오페라, 뮤지컬의 공연자들까지 확대 조사하고, 공연예술의 심리학적 접근방법을 연구한 선행 연구의 고찰 및 다년간의 현장 실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분장이 배우의 공연상황 전(全) 과정에서 심리상태와 공연수행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성별, 연령별, 경력별, 공연 영역별)로서 그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장에 대한 무대 공연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분장에 따른 배우의 심리상태 및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분장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 그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에 관한 지견을 얻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무대 공연자의 배경적 변인에 따라 분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분장에 따른 심리 상태와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경적 변인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분장에 대한 공연자의 인식이 배경 변인별 차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분장에 따른 공연자의 심리상태가 배경 변인별 차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분장에 따른 공연자의 공연수행효과에 배경 변인별 차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4. 분장에 대한 공연자의 인식이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5. 분장에 따른 심리 상태가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측정 도구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청주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의 4가지 영역의 공연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서울시립극단, 국립발레단, 청주시립극단, 청주시립무용단, 대학로, 중앙대학교, 서경대학교, 청주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충북 예술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경력별, 공연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부하여 420부가 회수(회수율:93.3%)되었으나, 이 가운데 자료의 체크가 확실한 것과 공연영역에서 다중응답을 제외한 총 416부를 실제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분장에 대한 배우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심리상태와 공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였고, 2004년 5월에 서울시립극단 단원 2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심리상태 측정도구는 스피버그 Spielberger(1972)가 고안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이 번안하여 표준화 시킨 설문지를 응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2.0 및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변인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심리상태와 공연수행에 대한 요인분석,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 2)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과 심리 상태, 공연수행의 배경변이별 평균 비교를 위해 독립된 T-test(Independent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3)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이 심리 상태와 공연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청주에 소재한 국립, 시립, 법인 형태의 단원들과 대학로, 4개의 대학과 1개의 예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분석 사례수는 416명으로, 남성이 186명(55.3%) 여성이 230명(44.7%)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높게 분포되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02명(24.6%), 20~24세가 143명(34.4%), 25~29세 94명(22.6%), 30대가 54명(13.0%), 40대 이상이 23명(5.3%)으로 10대와 20대의 분포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이 가장 낮은 비율로 구성되었다. 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이 56명(13.5%), 1년~3년 미만이 124명(29.8%), 3년~5년 미만 89명(21.4%), 5년~10년 미만 87명(20.9%), 10년 이상이 60명(14.4%)으로 경력 1년~3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분포되었는데, 이는 10대와 20대의 연령에서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연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극이 159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뮤지컬 87명(20.9%), 오페라 74명(17.8%), 무용 96명(23.1%)으로 연극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비슷한 분포로 구성되었다.

배경변인별 표본의 분포는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공연의 특성상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연자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며, 무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연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표본이 여성과 젊은층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배경 변인(연령, 성별, 경력, 공연영역)별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의 차이

성별에 따른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점수가 높게 분석되어 분장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분장인식의 평균 비교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평소에도 화장을 하고 다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분장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라 해석되어진다.

연령에 따른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의 평균 비교 결과, 10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경력에 따른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의 평균 비교 결과 3년~5년 미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력과 나이는 비례하므로 연령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배경변인별 분장인식 평균 비교

배경변인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Sig
성별	남	186	3.328	0.757	0.013*
	여	230	3.504	0.677	
연령별	10대	102	3.516	0.673	0.392
	20~24세	143	3.445	0.694	
	25~29세	94	3.366	0.719	
	30대	54	3.389	0.752	
경력별	40대이상	23	3.235	0.953	0.556
	1년 미만	56	3.375	0.757	
	1년~3년 미만	124	3.432	0.624	
	3년~5년 미만	89	3.533	0.770	
	5년~10년 미만	87	3.370	0.697	
영역별	10년 이상	60	3.380	0.817	0.015*
	연극	159	3.282	0.802	
	뮤지컬	87	3.497	0.643	
	오페라	74	3.511	0.560	
	무용	96	3.533	0.717	

영역에 따른 평균 비교결과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무용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무용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오페라, 뮤지컬, 연극의 순서로 비교되었다.

이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무용영역에서 평가를 중심으로 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평가받는 독무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무용 영역에서 특히 공연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분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3. 배경 변인별 분장에 따른 심리 상태의 차이

1) 심리 상태에 대한 요인

배경변인별 심리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상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석이 불가능한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6개의 문항이 3가지 요인으로 묶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PCA)을 시행하였고,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3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누적 변량은 요인1에서 42.36%, 요인2가 53.15%, 요인3이 59.70%였고,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 전후로 신뢰성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화가 난다, 신경 예민, 기운이 없어진다, 혼란스럽다, 당황스럽다, 안절부절, 신경질, 시무룩으로 분장 불만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쓸데없는 생각, 불안, 집중력 저하, 힘이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분장 불만족으로 인한 무기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활기, 집중이 잘된다, 의욕, 자신감으로 분장 만족에 의한 긍정적 심리상태로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집중을 요인의 명칭으로 명명하였다. 심리 상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2) 배경변인별 분장에 따른 심리상태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심리 상태의 평균비교 분석 결과 스트레스, 무기력, 집중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표 2〉 심리상태 요인분석 결과

요인	요인 설명	고유치	설명변량 백분율	누적변량 백분율	요인 신뢰도
스트레스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화가 난다.	0.6778			0.8248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신경이 예민해진다.	0.7540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진다.	0.6857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아 공연 전 혼란스러웠다.	0.6814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0.6619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0.6016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신경질이 난다.	0.7480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무룩해진다.	0.7072			
고유치(7.62), 설명변량 백분율(42.36), 누적변량 백분율(42.36)					
무 기 력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든다.	0.7648			0.7464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안하다.	0.6799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0.7090			
	분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힘이 없어진다.	0.5905			
고유치(1.91), 설명변량 백분율(10.21), 누적변량 백분율(52.57)					
집 중	분장으로 인해 기분이 활기차 진다.	0.7716			0.8313
	분장이 마음에 들면 집중이 더 잘된다.	0.7925			
	분장이 만족스러우면 의욕이 생긴다.	0.7917			
	분장이 만족스러우면 자신감이 생긴다.	0.6892			
고유치(1.18), 설명변량 백분율(6.55), 누적변량 백분율(59.70)					

심리상태의 요인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분장으로 인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경수(1996)의 논문 성별에 따른 불안수준 결과 남성 무용수에 비해 여성 무용수가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무기력 요인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집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분장으로 인하여 부정적 심리보다는 긍정적 심리요인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표 3〉 성별에 따른 심리상태 평균 비교

요인	성별	평균	SD	F	Significance
스트레스	남성	2.936	0.695	0.000***	
	여성	3.361	0.762		
무 기 력	남성	2.695	0.789	0.002**	
	여성	2.973	0.969		
집 중	남성	3.433	0.749	0.000***	
	여성	3.690	0.724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른 심리상태의 평균비교 결과 스트레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이 가장 낮은 10대와, 연령이 가장 높은 40대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무기력요인과 집중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10대와 40대 이상의 공연자들이 무대공연 시 분장 불만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에 따른 심리상태의 평균비교 결과 스트레스 요인과 무기력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 무기력 요인과 집중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은숙(1993)과 강경수(1996)의 논문에서 경력이 높을수록 불안심리가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경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분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심리상태에도 분장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결과로 해석된다.

심리상태의 영역별 평균 비교 결과 스트레스 요인과, 집중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무용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무기력 요인에서도 무용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장인식이 높을수록 심리상태

에도 높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연령별 심리상태 평균비교

요인	연령	평균	표준편차	Sig
스트레스	10대	3.342(A)	0.840	0.003**
	20~24세	3.000(B)	0.774	
	25~29세	3.167(AB)	0.662	
	30대	3.183(AB)	0.687	
	40대이상	3.464(A)	0.669	
무기력	10대	2.865	0.798	0.079
	20~24세	2.755	0.804	
	25~29세	2.849	1.162	
	30대	2.859	0.844	
	40대이상	3.339	0.740	
집 중	10대	3.640	0.819	0.103
	20~24세	3.442	0.725	
	25~29세	3.668	0.605	
	30대	3.667	0.752	
	40대이상	3.522	0.953	

**P<.01

<표 5> 경력별 심리상태 평균비교

요인	경력	평균	표준편차	Sig
스트레스	1년 미만	3.056(B)	0.784	0.049*
	1년~3년 미만	3.048(B)	0.671	
	3년~5년 미만	3.285(AB)	0.682	
	5년~10년 미만	3.186(AB)	0.931	
	10년 이상	3.341(A)	0.722	
무기력	1년 미만	2.920(AB)	0.757	0.009**
	1년~3년 미만	2.747(B)	0.763	
	3년~5년 미만	2.854(B)	0.781	
	5년~10년 미만	2.701(B)	0.837	
	10년 이상	3.203(A)	1.367	
집 중	1년 미만	3.438	0.750	0.130
	1년~3년 미만	3.488	0.734	
	3년~5년 미만	3.711	0.694	
	5년~10년 미만	3.629	0.682	
	10년 이상	3.604	0.894	

*P<.05 **P<.01

AB: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4. 배경 변인별 분장에 따른 공연 수행의 차이

배경변인별 공연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는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검증

<표 6> 영역별 심리상태 평균비교

요인	영역	평균	표준편차	Sig
스트레스	연극	2.983(B)	0.699	0.000***
	뮤지컬	3.172(AB)	0.723	
	오페라	3.309(A)	0.705	
무기력	무용	3.374(A)	0.868	0.633
	연극	2.794	0.792	
	뮤지컬	2.816	0.805	
집 중	오페라	2.903	0.851	0.031*
	무용	2.929	1.166	
	연극	3.456(B)	0.740	
	뮤지컬	3.552(AB)	0.765	
	오페라	3.696(A)	0.684	
	무용	3.701(A)	0.761	

*P<.05 ***P<.001

AB: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연수행 영향력' 요인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8가지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7>과 같이 모두 단일 요인에 묶여 공연수행 영향력의 단일차원성은 검증되었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 결과 Chronbach α 값이 0.6879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인정하는 0.6 이상의 값이 나와 신뢰도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7> 공연 수행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신뢰도
공연승패	0.4139	Alpha = .6879
역할수행	0.8263	
호응도	0.7839	
기량발휘	0.7432	
불입감	0.5939	
호흡	0.7183	
작품순서	0.8634	
신체동작	0.8600	

두 번째는 8가지 항목에 대한 Likert Summed Scale 값으로 변환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 결과에 의한 발생하는 요인점수(factor score) 값을 사용하여 평균비교나 회귀분석을 할 수 있으나, Hair (1998)의 주장⁷⁾과 같이 단일차원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단일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들의 단순평균에 의한 Likert Summed Scale 값으로 통계

분석을 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8가지 측정변수들에 대한 단순평균 값을 구하였다.⁸⁾ 이 값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에 따른 공연수행 영향력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배경변인별 공연수행의 차이

성별에 따른 공연수행 평균비교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평균 점수가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공연수행 효과의 평균비교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분장이 공연수행 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별 공연수행 효과의 평균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력 10년 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령과 경력에 높을수록 분장으로 인한 공행수행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 공연수행 효과 평균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배경변인별 분장에 따른 심리상태와 공연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태의 경우 성별, 연령별, 경력별, 영역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공연수행에 있어서는 연령별과 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상태의 평균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분장으로 인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에 있어서는 10대와 40대가 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10년 이상의 경력에서 스트레스와 무기력의 평균점수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영역별에서는 무용영역이 스트레스와 집중요인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장에 따른 공연수행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과 10년 이상의 경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분장

이 공연수행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연령과 경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분장이 공연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배경변인별 공연수행효과 평균비교 분석결과

	배경변인	평균	표준 편차	Sig
성 별	남자	3.045	0.722	0.798
	여자	3.063	0.646	
연령별	10대	2.898(B)	0.665	0.000***
	20~24세	3.158(B)	0.555	
	25~29세	3.158(B)	0.555	
	30대	3.554(B)	0.924	
	40대 이상	3.554(A)	0.924	
경력별	1년 미만	3.058(AB)	0.668	0.044*
	1년~3년 미만	2.979(B)	0.699	
	3년~5년 미만	3.077(AB)	0.613	
	5년~10년 미만	2.993(B)	0.664	
	10년 이상	3.267(A)	0.745	
영역별	연극	3.069	0.711	0.166
	뮤지컬	3.086	0.620	
	오페라	3.152	0.665	
	무용	2.928	0.685	

*** $P < .001$ * $P < .05$

AB: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5. 분장인식이 심리상태 및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

분장인식이 심리상태 및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로 첫째로 분장인식이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둘째는 심리상태가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9>는 분장인식이 심리상태와 공연수행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장인식은 심리 요인 중 스트레스 요인과 집중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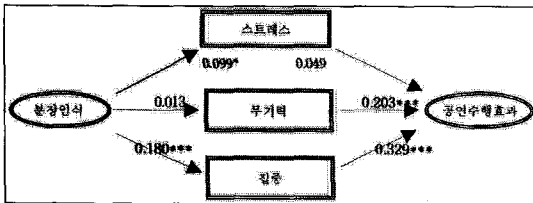
또한 심리요인 중 무기력 요인과 집중요인이 공연수행효과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경로분석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9> 분장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공연수행과의 경로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경로계수	t-value	Sig
스트레스	← 분장인식	0.099	1.901	0.048*
무기력	← 분장인식	0.013	0.211	0.833
집중	← 분장인식	0.180	3.591	0.000***
수행효과	← 스트레스	0.049	1.345	0.179
수행효과	← 무기력	0.203	6.626	0.000***
수행효과	← 집중	0.329	8.883	0.000***

* $P < .05$ *** $P < .001$



<그림 1> 분장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공연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 모형

<그림 1>의 경로분석 모형을 살펴보면, 분장인식은 스트레스 요인에 0.099와 집중요인에 경로계수 0.180값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공연수행효과에 미치는 심리요인은 무기력 요인이 경로계수 값 0.203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집중요인은 경로계수 0.329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장인식은 심리 요인 중 스트레스와 집중 요인에 영향을 주며 무기력 요인과는 경유하지 않는 결과로 해석되고, 공연수행효과에는 무기력 요인과 집중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스트레스 요인과는 경로가 경유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연자에게 분장의 만족은 긍정적 심리상태인 집중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요인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연자의 공연수행효과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무기력 요인보다 집중요인에서 경로계수 값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연자들이 분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분장에 따른 심리상태 및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첫째 배경변인별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의 차이, 둘째 분장에 따른 심리상태의 차이, 셋째 분장에 따른 공연수행의 차이, 넷째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에 따른 심리상태에 및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경변인별 분장에 대한 공연자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 공연자 보다 여자 공연자들이 비교적 분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역별에서는 무용, 오페라, 뮤지컬, 연극의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무용영역에서 분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배경변인별 심리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상태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스트레스 요인 무기력요인 집중요인 등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배경변인별 심리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경력별, 영역별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심리상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요인, '무기력' 요인, '집중' 요인 모두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심리상태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평균 비교 결과 스트레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0대와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경력에 따른 평균 비교 결과에서는 스트레스 요인과 무기력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영역별 심리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요인과 집중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무용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배경변인별 공연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경력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0대이상과 경력 10년 이상에서 공연수행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분장인식이 심리상태와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장 인식은 스트레스 요인과 집중요인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무기력 요인과 집중요인은 공연수행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의거한 결론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과 청주에 거주하는 공연자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또한 설문지 작성시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통제할 수 없었으며, 무용 영역 또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표본을 세분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역과 세분화된 영역 및 설문작성 시간 통제가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공연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와 대사를 통한 표현방식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예술로서 공연자는 항상 공연 상황에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지니고 있다. 분장은 공연의 중요한 요소로 공연자의 개인적 심리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심리상태의 요인 중 집중과 무기력은 공연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분장은 관객들로 하여금 시각적 리얼리티를 유도하며, 배우가 맡은 배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실감과 감동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연자의 공연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분장이 필수적이며, 분장 전문가의 역할이 공연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공연에 있어 분장의 역할이 강조 된다는 것은 분장사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분장사의 역할과 임무는 공연자들이 최상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그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장 전문가들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이에 따른 국가적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공연 관련 인들의 분장에 대한 인식의 제확립과 이를 위한 분장 전문가의 양성도 중

요한 과제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신일수 (2000).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주) 교보문고, p. 5.
- 2) 정기옥 (1995). 시각적 공간성이 공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 3) 문영 (1999). 무용 심리학. 도서출판 보경, pp. 3-10.
- 4) 조은숙 (1993). 무용수의 심리적 불안 요인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0.
- 5) 강경수 (1996). 무용수의 심리적 불안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0.
- 6) 김은희 (2000). 무용수업 전 심리상태와 환경요인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Hair, F. Joseph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ition)*. Prentice Hall.
- 8) Likert Summed Scale값을 구하는 공식은 {Σ측정변수 + 측정변수 개수}이다.
- 9) 김은희 (2000). 무용수업 전 심리상태와 환경요인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정수 (2000). 직업 발레 무용수들의 심리적 방해요인에 따른 공연수행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
- 11) 고현정 (2002). 무용의 심리연습이 무대공연에 따른 불안 스트레스요인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50.
- 12) 박진서 (2003). 체육프로그램 활동이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 13) 박현숙 (1997). 무용전공자의 공연 전 신체적 자기 효능감 및 경계상태 불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14) 정지현 (1994). 무용공연의 작품성격에 따른 분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 15) 조성덕 (2000). 무용공연 불안원인 및 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0.
- 16) 최지은 (2003). 무용수의 무대공연 불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
- 17) 이정은 (1993). 무용 조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6.
- 18) 한미영 (2002). 무대조명이 무용 활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7-28.
- 19) 황성원 (2001). 헬릭 공연을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 동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 20) Mcgrath, R. E. & Burkhart, B. R. (1983). Measuring Life stress, A comparison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Different scoring systems for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 21) Cheney, Cheldon (1949). *The theatre: Three thous-*

- and years of Dramal*, N.Y.: Acting & Stage, p. 1.
- 22) Hair, F. Joseph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ition), Prentice Hall.
 - 23) 정청희 (1985). 최상의 운동수행을 이상적 심리상태. 대한체육학회 스포츠과학세미나, pp. 40-45.
 - 24) 정청희, 홍길동 (2002). 하키선수들의 심판 판정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공연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체육학회, pp. 30-32.
 - 25) 강대영 (1999). *한국분장예술*. 도서출판: 지인당, pp. 3-8.
 - 26) 김정수, 황규자 역 (2000). *Jim taylor, Cecl taylor*, 무용심리학, 도서출판: 금광, pp. 3-20.
 - 27) 김응태 (1997). 연극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p. 50.
 - 28) 김일영 (2002). 연극과 영화의 이해. 도서출판: 느티나무, p. 13.
 - 29) 박이명 (1994). 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15.
 - 30) 새뮤엘 셸던 (1997). *무대예술론*. 현대미학사, p. 60.
 - 31) 연극 한국연극교육학회 편 (2000).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p. 60.
 - 32) 이태섭 외 2명 (2001). 공연제작의 실제. (주)아르케라이팅아트, p. 27.
 - 33) 전매희 외 1명 (1987). *스포츠 심리학*. 도서출판: 금광, p. 9.
 - 34) 질 지라르 저, 윤학노 역 (1998). 연극이란 무엇인가. p. 68.
 - 35) 한옥근 (1998). 연극의 이해. 국학자료원, p. 58.